**행1618 Note**

**◆너는 왜 바울이 첫날 그 영을 다루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고 있느냐?"**

Ω행1616.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우리가 기도하러 가면서, 점치는[퓌돈:(신들린 자에게 있는)영감,점장이,점치는 영,점] 영으로 점유된 (에코:붙잡다,소유하다,간직하다,동반하다,보관하다) 어떤 소녀 (파이디스케:소녀,특히 여성 노예나 종,하녀,처녀)가 우리와 마주치니라, 그녀가 예언 [만튜오마이:신이 말하다,(예언하는 것을 가장하여) 말하다,예언으로]에 의해 많은 이득을 그녀의 주인들에게 가져갔느니라,

행1617.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외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Ω행1618. 그리고 이것을 그녀가 많은 날 동안 하니라, 비탄해 하던[디아포네오:애쓰며 나가다,(수동태) 괴로움을 당하다,슬픔을 당하다] 바울이 돌아서서, 그 영(靈)에게 말하니라,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로 그녀에게서 나올 것을 내가 네게 명하느니라", 이에 그가 그 시에 나오니라.

왜 바울이 첫째 날에 그 악령을 쫒아내지 않았을 까요?

은사는 바울이 원한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원하실 때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의 역사를 가질 때까지는 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자신과 당신가족의 삶에 대해서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집안에 대해서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내 집안의 영역에서 악한 영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부인이나, 자녀들의 사람의 영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에 대하여는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영역을 다스리고 있다. 너 마귀가 내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린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내가 권세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적권세의 범위는 자연적인 권세의 범위와 매우 유사합니다.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남에게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움을 원할 때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권세를 그 자체만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적인 나타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그들은 지식의 말씀이나, 영분별이나 성령의 기름부음도 없이 영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주님은 전에 점치는 영에 들렸던 소녀를 예로하여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왜 바울이 첫날 그 영을 다루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고 있느냐?"

"그는 성령의 나타남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기다려야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